

월요광장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지난 1월 7일 수요일 오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본사에 이슬람 무장괴한이 총을 난사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테러범들은 프랑스 국적 이민 2세 청년 3명으로, '샤를리'가 성자 무함마드에 대한 조롱 섞인 풍자를 담은 만평으로 이슬람교를 모독했기 때문에 응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러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관심과 논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는 샤를리다'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상반되는 구호입니다.

테러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프랑스 혁명 이래 건국정신의 근간이고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150만 명이 참가한 파리 테러 희생자 추모행진에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케머런 영국 총리 등 50여개가 넘는 국가의 정상이 선두에 섰습니다.

서방세계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파키스탄, 이란,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권 뿐 아니라 호주에서까지 '반샤를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를 태우는 일부 이슬람 국가의 시위에 대해 "국기를 훼손하는 일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샤를리'의 무함마드 누드 만평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를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프랑스 국기를 태우는 일은 안 된다고 하니 이중잣대란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샤를리'는 2009년 유대인 풍자만화를 그린 모리스 시네를 해고했습니다. 압력을 받은 편집장은 '반유대주의'라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고, 시네는 이 요구를 거부하여 20년이나 근무한 '샤를리'에서 해고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샤를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이슬람을 모독하는 만평들을 수없이 발표했지만 유대인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프랑스 정부가 최근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가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오늘 밤 샤를리 롤리발리 같아요"라는 글이 중요하고 분열을 부추키는 발언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기소된 사람이 5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프랑스가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만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약자와 소

수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중잣대로 적용하거나 강자의 무기로 사용하면 폭력이 될 뿐입니다. '거지와 부자 모두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고 거지에 대한 폭력입니다. 부자는 다리 밑에서 노숙할 이유가 없지만 거지는 잠잘 자리마저 빼앗길까 두렵거든요.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는 거지와 부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지와 부자라는 현실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옹호하거나,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두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나는 샤를리다'란 구호가 자칫 평화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최악의 일탈행위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문명사회의 최고 가치인 것은 맞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나의 신앙뿐 아니라 남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며, 남의 신앙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집회에 참가한 파리의 고등학생은 르몽드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슬람교도가 아

니라서 '나는 샤를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의 이슬람 친구들은 '내가 아흐메드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흐메드는 테러범에게 살해된 2명의 경찰관 중 한명으로, 튀니지 출신의 무슬림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볼테르의 유명한 표현인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이 탄압받는다면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는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믿는 파리의 고등학생은 "나는 샤를리가 아니라 아흐메드다. 자신의 신앙과 문화를 조롱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아흐메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대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50만 명이 모여 '나는 샤를리다'를 외친 자리에도 일종의 연대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연대는 '나는 아흐메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슬림 친구를 위해 파리의 고등학생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고 외친,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는 샤를리다'에 포함될 수 없는 '샤를리 아닌 것들'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 세상은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지요. "평화는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빌리브란트)기 때문입니다.

법조칼럼

법적으로 튼튼한 전셋집 구하기



박주영 광주지법 판사

2년 전 겨울, 보름 낡지 되는 기간 안에 살던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적금을 해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도 받았지만 전셋집 문제는 빌리기에 적당한 집을 찾는 일이었다. 재판과 판결은 법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의 범주에 판사 개인의 경험이 가미되어 나오는 결과물이고 덕분에 법정에서 임차인들의 주장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만,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일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임지를 옮기게 되면서 다시 전셋집 구하기 행렬에 뛰어들었으나, 여전히 집을 구하는 일은 따지고 쟁겨야 할 일이 많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전셋집을 구할 때물은 잘 나오는지, 보일리는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지만 법적으로도 '튼튼한' 건물인지 요모조모 따져봐야 한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집주인 이외의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살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긴다.

대항력은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2015년 7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시키기 위하여도 필요하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부득

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현재 사는 곳에 있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집주인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동일한지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임차할 일자 도장을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라도 경매에서 집을 산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을 변제하여 소멸시키면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있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전세금보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입주할 집에 세금 관련 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해당 부동산으로 인하여 체납된 각종 세금은 당해세라 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이외의 세금은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된 압류일자나 아니라 체납국세가 발생한 시점(법정지일)이 권리기준일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압류세 목이나 금액, 법정지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무서 등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자선보다 먼저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다른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실 역시 부동산등기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향후 부동산등기부에 그동안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만으로 확인되지 않던 체납세금이나 다가구 단독주택의 세입자별 전, 월세내역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 미래 준비 철저히



김강진 조선이공대 교수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로 삶은 문명화 되었고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이루어 왔다. 뒤이어 문자와 전기 등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줄을 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의 발명품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대변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일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사후에 그의 이름처럼 수많은 창조적 직업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효율과 스피드 면에서 낙오되는 많은 직업들을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퇴출시켰다. 인류가 이어 온 위대한 발견과 발명품들의 공동분모는 혁신과 창조였고,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그리고 미래와의 연결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원동력이 되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은 최근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20억 개 이상의 직업들이 소

멸한다고 예측하면서, 없어진 만큼의 새로운 직업들을 커버할 촉매기술(catalytic tech)이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해낼 것이며 그 중 대표적인 162개의 기술과 직업들을 공개했다. 열린 눈에 익숙한 것들만 밝혀도 봐도 상용 무인항공기(드론),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무인자동차, 마이크로 칼리지와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수업)-, 주변이 온통 바뀌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고 용어조차 생소하여 겁이 나고 두렵다. 공포에 가깝다.

그러나 벌써 미국 의회는 금년 9월말까지 미 영공에 드론이 통행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과 관련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러면 아마존은 예고했던 대로 30분 이내에 인터넷 주문상품을 드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배달할 것이고 미국 영공은 수많은 드론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이미 폐막된 금년 라스베가스 전자 쇼는 많은 기업들이 상용화에 대비한 드론 전용부스를 공개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언론은 '드론의 습격'이란 부제까지 달았다.

3D프린터는 조만간 제조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사출공정이 가장 먼저 모습을 바꾸며 이어서 세라믹공정까지 수많은 가정용 3D프린터가 대신하게 된다.

빨리 마르는 시멘트로 집을 프린트하고 금속으로는 자동차 바디를 또 바이오프린터는 인간의 피부를 만들고 정맥 합출까지 프린트한다.

모건 스탠디스는 2020년까지 750억 개의 기기나 센서들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데, 80억명의 인구가 한 사람당 9.4개의 기기들과 연결되어 IoT가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원년을 맞이한다고 예고했다. 빅데이터 기술은 머지않아 증권거래소의 존재 유무에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 MOOC도 한국식 대학교육시스템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고 있다.

아이언 맨의 실제 모델, 엘런 머스크가 개발한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구상한 Hyperloop, Skytran, Jpodz 및 데릴 오슬러의 ET3 역시 미래의 운송시스템을 바꾸는 직업 기술이다. 시속 6000km로 달리는 안전한 자기부상전공류트열차가 나오면 비행기, 선박, 버스, 트럭 등을 탈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미 KTX가 나오면서 지역 광항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대학에서 자리를 얻고 난 이후에 매년 초 강의계획을 수립하면서 비롯처를 하는 작업이 있다. '20 Jobs of the Future'. 매년 생겨나는 새

로운 직업군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설정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개인적인 신념에서이다. 물론 이는 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저널과 자료를 입수해 내가 임의로 편집한다. 지금은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의 Interval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매년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실감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토론을 즐기고 호기심이 넘쳐나는 선진국 학생들과 다른 모습이다.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연구실에서 써 붙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이 새삼스럽다.

세상은 빨리 바뀌고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맞게 인제교육이나 훈련도 급변하며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오래 교육시킨다. 언제 나 산업이 소멸하여도 직업이나 일자리는 남는다. 미래산업에 맞는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인적자원은 신산업 수천 개로부터 신직업 수백 만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미래 상상산업을 먼저 알아야 미래 직업을 알 수 있다.

社說

박 정부 인사 또다시 호남 출신 배제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는 동시에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수석 3명, 이영재 민정특보 등 특보 4명을 포함한 7명을 내정하고, 조만간 특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총리 후보자 발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도로 청와대 인적 개편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업무만 조정됐을 뿐 그대로 머물러 국민적 요구와는 적지 않은 거리를 남겼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분간'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아니다.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개의치 않겠다는 대통령의 오기마저 느껴진다.

게다가 이번 청와대 수석 및 특보 인선을 보면 7명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이 4명에 달하고, 호남(광양)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부처의 장관 중 호남(함

평) 출신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러한 차별은 역대 군사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우리는 지난 신년 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박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나름의 기대를 걸었다. '탕평인사 소용' 지적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편차라든가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까지 떨어진 것은 측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대통합 정신에 부합하는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전남 초등학교사 수급 차질 '뺨질'은 안 된다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사 신규 임용 시험에서 100명 이상 탈락이 예상되면서 교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응시자들의 실력이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농어촌 근무 기피에 따라 지원자는 적고 명퇴자가 많아 빚어진 현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학년도 초등학교사 임용시험 결과, 선발 예정인원 588명 가운데 1차 시험에 497명만 합격해 91명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 불합격자는 교육과정과 논술에서 과목 당 40점을 넘지 못해 과락으로 1차에서 탈락했다.

전남도교육청이 "과락 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당황해 한 것처럼 이번 초등학교사 부족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실력없는 응시자가 예상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규교사들이 섬과 오지가 많은 전남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대도시인 광주는 초등학교사 경쟁률이

지난해 2.3대1에서 올해는 2.6대1로 증가한 반면 전남은 1.04대1, 즉 선발인원보다 겨우 24명이 많았다. 갈수록 교사 자원 조달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교육환경의 흐름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여기에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개혁 움직임에 불안을 느낀 교직원들이 대거 명퇴하는 데도 이를 적극 감안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오는 2월 말 전남지역 명퇴자(잠정) 중 초등은 214명, 중등 336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2~3배가 급증했는데, 이제는 못 나가게 붙잡아야 할 판이다.

도교육청은 예비인력 책정, 기간제 교사 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남지역 임용시험 기피와 수급 불안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無等鼓

15~17세기 유럽에서 발원한 '마녀사냥'으로 무려 50여만 명이 마녀 또는 마법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화형 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 유럽 각국은 마녀사냥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카톨릭교회 역시 마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부인했다.

장하면서 대중이 가장 억압받는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이 풀린다. 집과 토지를 잃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빈곤 무산 농민들이 급속히 증가하자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방종과 사치로 누렸던 귀족과 성직자들은 기존 사회체제의 유지에 위기를 느끼게 된다.

마녀사냥

실제로 AD 1000년께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가 있다는 말은 악마가 조작해 낸 환형에 불과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회는 "신앙 없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환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악마는 사람들이 밤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게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날아다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500년 뒤 교회는 "마녀가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마와 손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다. 이어 1484년 이노센트 교황은 교서를 내려 '독일 전역의 마녀를 근절하기 위해 종교재판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마녀사냥 광풍이 시작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당시 유럽은 봉건주의가 붕괴하고 강력한 민족국가들이 등

중은 자신들이 영주와 교황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마와 마녀의 희생물이라고 믿게 됐다. 국가와 교회가 중세 후기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와 권력은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계기만 없다면 그 사회체제가 지속되는 한 '유지, 집중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배계층이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유다.

민주시민으로서 천부의 인권을 온전히 누리려 한다면, 그리고 아이없는 마녀사냥에 놓이지 않으려면 지배계층의 모략을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홍형기 경제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 고 매 개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